

“순천만 습지 건강하게 물려주자”



여수반도와 고흥반도가 포용하듯 감싸 안아 거대한 호수같이 평온한 곳. 동으로는 해룡면 외안 마을부터 서로는 별량면 구룡마을까지 해안선 길이만도 100리가 넘는 곳. 인간과 새, 나무, 갯벌, 바다, 식물이 함께 어울리며 오밀조밀 살아가는 생태 공화국... 이렇듯 수직하는 단어들에 출비한 순천만은 세계 5대 연안습지의 하나로 손꼽힌다. 순천만은 2003년에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됐고, 2006년에 국내 연안습지 최초로 ‘람사르 습지’로 등록됐다.

오늘의 순천만이 있기까지 순천 시민들은 습지보전을 위해 심혈을 기울여 왔다. 나아가 순천시는 순천만 습지보전 및 현명한 이용을 위한 중·장기 계획과 보전 관리 계획 수립에 나설 계획이다.

시, 수질·갈대 군락 등 조사...중장기 보전 계획 세우기로 인근 주민·학생 참여 생태교육 등 다양한 프로젝트 추진



순천만을 찾는 겨울 철새들의 쉼터 조성을 위해 순천 인안초등학교 학생들이 먹이를 주고 있다.

순천만 습지 보전·관리방안 모색 = 시는 2013년 11월부터 순천만 생태환경 조사 및 효율적 보전방안 연구용역을 실시, 지난 10월 완료했다.

연구내용은 유입하천, 순천만 수질, 저서 동물, 갈대군락, 염생식물 등을 조사했으며, 용역 결과를 토대로 2016년 해양수산부와 환경부에 국비를 건의할 예정이다. 또 시민단체와 인안초등학교 등 인근학교와 함께 흑두루미 조사를 실시했으며 (사)순천만 생태관광협회를 발족해 민간주도 생태관광 운영 활성화와 토대를 마련했다.

또한 시는 순천만습지 보전과 관리를 위한 보전 관리 계획을 2015년까지 수립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순천만 갯벌의 건강성 분석 ▲갈대군락의 변화 추이 ▲민간이 주도하는 외안에서 용두까지 생태관광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시는 순천만 유입하천 및 습지보호지역 수질을 매년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순천만 일월 갈대군락지 유지 관리에 나선다.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해 2016년까지 생태체험 관광마을을 4곳(장산, 거차, 농주, 대대)

을 선정하고 프로그램 등을 개발·운영할 예정이다.

시는 오는 2018년까지 순천만 세계유산 등재를 위해 순천만에 대한 학술적 조사와 자료 축적, 순천만 갯벌에 대한 통합적인 관리방안 등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순천만 습지 보호구역내 폐염전 등 생태 복원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순천만 습지 보호구역내 폐염전 등 생태 복원사업은 외안에서 화포까지 생태보존 지구로 지정하고 마산, 용두 지역에 대해서는 개발행위 제한지역으로 지정한다. 해수부에서는 연차적으로 폐염전 지역에 대해 갯벌 복원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겨울철새 먹이공급·휴식처 제공 = 시는 순천만을 찾는 겨울 철새들의 안정적인 먹이 공급과 휴식처 제공을 위한 ‘생물 다양성 관리계약 사업’을 지난 2005년부터 실시해 오고 있다.

‘생물다양성 관리계약 사업’은 올해 2억

3000여만원을 투입해 수확 후 볏짚을 잘게 썰어 눈에 뿌리는 ‘볏짚 존치사업’과 철새들이 쉬어갈 수 있게 물을 일정 높이로 가두어 두고 미꾸라지 등을 방사해 먹이를 제공하는 ‘쉼터 조성사업’으로 나눠 시행되고 있다.

이 사업은 추진협의회에서 협의 결정된 순천만 인근 생물다양성 지구에서 벼를 재배하고 볏짚 존치 등 사업참여를 희망하는 주민들의 사업신청을 받아 시행하며, 그동안 2회의 협의회를 통해 총 430여 농가 397ha 농지를 사업 대상으로 선정할 예정이다.

시는 앞으로 3차 협의회를 열어 점검반을 편성하고 교차 점검을 통해 철저한 이행사항을 확인 점검한 후 내년 3월에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지원 사업비는 이행 정도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순천만 습지보호지역 인근 초등학교 인식증진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순천 인안초 학생들이 1년 동안 직접 기른 친환경 범피

로 겨울철새 먹이나누기 활동을 진행하는 ‘흑두루미 눈가꾸기 프로젝트’가 눈길을 끌고 있다. 전교생이 순천만 흑두루미 희망농업단지내 농경지에서 모내기부터 수확까지 참여해 나라를 순천만 겨울철새들에게 나누주는 프로그램이다.

‘흑두루미 눈가꾸기 프로젝트’는 순천만에서 활동하는 흑두루미를 포함한 겨울철새 생태교육을 비롯해 먹이나누기, 탐조·천문대 탐조 활동 등으로 꾸며진다. 특히 철새 서식지 보전의 중요성과 자연과의 공생을 배울 수 있다.

또 시는 순천만의 효율적인 보전과 습지보호지역 인근 지역 주민과 학생들의 참여 및 인식 전환을 위한 ‘초등학생·중학생 흑두루미 모니터링 사업’을 지난 10월부터 진행하고 있다. 순천만 구역별 관리 및 생태계 보전 정책의 기초 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흑두루미 새벽 탐조 인기 = 이 밖에도 시는 순천만 탐방객을 위한 겨울철 특색 프로그램으로 ‘흑두루미 새벽 탐조 프로그램’을 이달부터 내년 3월까지 매주 일요일 새벽에 운영한다.

탐조 프로그램은 순천만의 생물다양성 및 서식지 보전의 중요성 교육, 전문 해설사와 순천만 탐조대에서 함께하는 흑두루미를 포함한 겨울철새 탐조, 흑두루미 먹이나누기 등 다양한 내용으로 사전 예약제로 운영한다.

순천시는 겨울철새와 두루미류 보호를 위해 경관농업과 무논 조성, 철새지킴이 활동, 농경지내 일반 관광객 동선 차단 등 안정적인 서식지와 월동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정책을 펼쳐 오고 있다.

순천시 관계자는 “순천만 습지보전 및 중·장기 계획 수립으로 순천만에 대한 새로운 가치 발굴과 도심과 연계한 습지센터 이용 및 새로운 미래까지 창출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순천=김은종기자 ejkim@

순천시 쓰레기 무단투기 감시 CCTV 10개 설치

순천시가 이동식 감시용 CCTV를 본격 가동해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활동을 강화한다.

23일 순천시에 따르면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용CCTV를 이달 상습취약지 10개소에 설치·가동중이다. 설치장소별 CCTV의 영상을 실시간 확인해 무단투기자 적발시 최고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절차를 이행할 계획이다.

이로써 주거생활과 관련한 중량제 봉투 미사용자는 물론 차량을 이용해 반복적이고 상습적인 쓰레기 불법투기 행위자를 적발할 수 있는 시스템을 확보하게 됐다.

설치 후 시험가동 기간(15~20일)동안 감시카메라 설치지역은 쓰레기 불법투기가 사라져 투기예방 효과가 크게 나타났다. 이에 따라 시는 내년도 추가 설치 검토 등 감시장비 설치를 점차 확대할 방침이다.

시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함양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이 조성될 때까지 쓰레기 불법투기에 대한 단속강화와 함께 쓰레기 배출요령에 대한 시민 홍보체계도 다양하게 펼칠 방침이다.

순천시 관계자는 “그동안 야간이나 주말 등 취약시간을 틈타 수시로 버려지는 쓰레기 불법투기로 인한 생활불편 민원이 발생하고 있지만 공무원과 환경미화원 등 인력만으로는 단속이 어려움이 있었다”면서 “무단투기 감시용 CCTV 가동 및 민·관 관리책임제 운영으로 단속활동을 펼치고 있지만 단속의 한계가 있는 만큼 올바른 배출하고 시민 스스로가 감시자가 돼 새해부터는 쓰레기 없는 도시 달성에 동참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순천=김은종기자 ejkim@



순천시-하나카드 순천만 보전 기금 마련 업무 협약

순천시와 하나카드가 지난 22일 서울 하나카드 본사에서 순천만의 효율적인 보전과 현명한 이용방안 기금 마련을 위해 업무제휴 협약을 체결했다.

순천시와 하나카드는 하나SK카드와 외환카드 통합기금으로 Sync(싱크)적립카드와 연계한 ‘하나 SuncheonBay(순천만) 적립카드’를 발매해 순천만 보전 등 녹색경영의 파트너로서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협약 주요내용은 하나카드는 순천만의 효율적인 보전을 위해 ‘Suncheon-Bay(순천만) 카드상품’을 판매한 유치 지원금 3만원과 이용금액의 0.1%를 발전기금으로 후원 적립하고, 순천시는 카드소지자에 대해 관광지 입장료 50%를 할인해 준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번 협약은 전국 976개의 하나외환



은행 지점망을 통해 카드상품을 발매해 ‘하나 SuncheonBay 카드’ 사용을 통해 순천만의 생태보전과 주요관광지 할인 혜택에 따른 순천관광 활성화 물론 하나 금융의 녹색성장 선도기업 이미지 홍보 등 상호 윈-윈 전략에서 마련됐다.

/순천=김은종기자 ejkim@

순천만·순천만정원 통합 입장권 8000원으로 인상

1월부터 새 요금체계 적용

내년 1월부터 순천만과 순천만 정원을 모두 관람할 수 있는 통합 입장권 요금이 인상된다.

순천시는 입장권 하나로 순천만과 순천만 정원을 모두 입장할 수 있는 통합 입장권 요금을 현 5000원에서 8000원으로 인상하는 등 순천만과 순천만 정원의 새로운 입장료 체계를 결정,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또 두 곳 중 한 곳만 관람하고자 할 때

는 순천만 7000원, 순천만정원 4000원으로 정했다. 이와 함께 순천만정원내의 이동 수단인 관람차 탑승료도 현행 2000원에서 3000원으로 올렸다.

순천시는 “주민공청회 등 의견수렴 결과 순천만정원의 가치로 볼 때 민간 생태원이나 수목원과 비교해 관람료가 낮다는 의견을 반영하고, 순천만에 일시에 몰리는 관광객을 순천만정원 쪽으로 유도해 순천만을 보전하고자 입장료를 인상하게 됐다”고 밝혔다.

/순천=김은종기자 ejkim@

시내지국

광천	366-8375
광남	222-9440
남부	652-0175
동광	264-2012
동명	222-9054
동부	225-6001
문흥	267-4748
백운	673-4698
봉신	675-5530
북광	525-3761
상무	372-2352
서광	369-0583
송하	676-8605
신안	512-1732
양산	571-7658
양치	266-7601
용봉	522-7752
우산	512-8116
운천	371-9818
월곡	961-2339
중앙	222-1896
중흥	224-8604
진월	673-1600
침단	973-2900
충장	224-8212
치평	376-6511
봉암	682-8112
하남	959-1500
화정	375-9862

지방지사

광산	062/944-0444	남원시	063/626-1601
군산시	063/467-2500	순창군	063/653-0444
정읍시	063/531-5544	서울보급소	02/313-5962

독자와 함께 걸어온 길 **62** 광주일보

ABC협회인증 호남 최대 발행부수!

대(代)를 이어 읽는 신문

광고문의_062 227-9600 | 신문구독_062 220-0551 | 예향구독_062 220-0550